

생명의 떡

1/13 월요일

아침의 누림

요 6:33, 35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입니다.”

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창 2:8-9

8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계 22:1-2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 장을 주의 깊게 읽어 본다면, 이 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 첫째로,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35, 48 절). 둘째로, 주님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떡, 즉 그분의 살을 주신다(51 절). 셋째로, 주님은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그분의 피도 주신다(53 절). 주님께서 살과 피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그 배경은 유대인의 유월절이었다. 이 명절에 각 가정은 어린양을 죽여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받았다. 어린양이 죽어야 했듯이 주 예수님도 죽으셔야 했다. 넷째로, 주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56 절).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든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와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되실 것이다. 다섯째로, 주님께서 사람 안에 사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 앞에 산다(57 절). 여섯째로, 그분의 물질적인 살이 아닌 그분의 영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게 하신다(63 절). 일곱째로, 주님의 영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레마 안에 계신다.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63 절).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주님의 영은 그의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생명이 되신다. 이 생명이 ‘생명의 떡’, ‘참떡’, ‘살아 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고 소화할 때, 이 떡은 그의 조성이 되고 그는 주님과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된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59년, 1권, 요한복음에 있는 계시: 생명과 건축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봄, 영문판, 9장, 24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구약에 있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도 여전히 죽었다(요 6:49). 그것과 대조적으로, 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그분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50 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표적이나 기이한 일을 행하시거나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일하라고 요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주님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다. 그분께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 6:35). 주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이루기 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주 예수님은 음식의 형태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다. 그 어떤 현자도 이러한 사상을 가진 적이 없다.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심오한 말씀이다. 철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에 담긴 사상이 심오하다는 것을 안다. ... 어떤 평범한 사람도 이처럼 비범한 말씀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라는 것은 그분께서 음식의 형태로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거나 그분께 희생 제물을 바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 장에서 주님은 왕이나 천사장의 신분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 그분의 신분은 생명의 떡이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이 문제를 소홀히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사상을 만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의 사상을 만진다면 주님께서 음식의 형태와 음식의 신분으로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매우 놀랄 것이다. 이 땅에서의 그분의 일의 목적은 사람이 그분을 먹음으로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이해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서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엄밀히 말하면,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된 목적은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음식 곧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한 가지 중심적인 일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것에 의해 사람은 영적 자양분이신 그분을 먹고 소화하여 그의 조성이 되시게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된 목적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59년, 1권, 요한복음에 있는 계시: 생명과 건축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봄, 영문판, 9장, 232-233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59년, 1권, 요한복음에 있는 계시: 생명과 건축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봄, 영문판, 9장

들이고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내 말을 잘 듣고 좋은 것을 먹어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여라.

요 3:14-16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15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 곧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이다(27, 32-35, 47-58, 63 상, 68 하절). 그분을 먹는 것은 한 번 만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일이며, 심지어 순간순간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 우리 모두는 ... 주님을 접촉해야 하고 그분을 먹어야 한다. 우리는 단지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분이시다. ... 우리는 말씀이시자 그 영이신 그분을 먹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소화하고 체험하며 순간순간 적용할 것이다. 이것이 전부이며,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일을 잊어버려야 하며,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먹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한 신성한 생활 방식이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권, 메시지 16, 266-26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한 생명의 떡이시다. ...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떡이시다. 영적으로 말해서 사람은 모두 굶주려 있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 오직 우리의 양식이신 그리스도이다. ...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식이신 그리스도가 여전히 매일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의 생명 공급, 곧 매일의 양식이시다.

요한복음 6장 27 절에서 영원한 생명은 신성한 생명 곧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으로서, 시간과 관련하여 영구할 뿐 아니라 본성에 있어서 영원하고 신성하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은 주 예수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 되시려고 하늘에서 오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뜻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양식, 곧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6장 32 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참떡으로 언급하신다. ... 참떡이신 그리스도는 진리의 떡 혹은 실재의 떡이시다. 그리스도는 참되시고 실재적이시다. 그분께서 참양식이시고, 다른 모든 종류의 양식은 참양식이신 그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매일 먹는 물질적인 양식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의 실재는

1/14 화요일

아침의 누림

요 6:27, 32

27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3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떡을 여러분에게 준 이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참떡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사 55:2

2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에 돈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참떡이시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 참떡이 되셔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시려고 하나님에 의해 생명의 참떡으로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 있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먹어야 한다.

요한복음 6 장 33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심을 본다. 하나님의 떡이신 그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으셨으며, 하나님과 함께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우리가 먹기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육체가 되셨다.

요한복음 6 장 35 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고, 51 절에서는 “나는 ... 살아 있는 떡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생명의 떡’은 그 떡의 본성 곧 생명을 가리키고, ‘살아 있는 떡’은 그 떡의 상태 곧 살아 있음을 가리킨다.

요한복음 6 장 47 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본다.

요한복음 6 장 29 절에 있는 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신 관점은 사람이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즉 그분을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2 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을 가져오는 생명나무의 원칙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8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79, 48-5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8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79

1/15 수요일

아침의 누림

요 6:51, 53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요 6:47

47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 1:12, 29

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출 12:4, 7-8

4 만약 어린양에 비해 집안 식구가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람 수를 감안하여 어린양을 고르되, 각 사람이 먹는 양을 가늠하여 어린양을 먹을 인수를 계산해야 한다.

7 그리고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양을 먹을 사람들이 있는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8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그저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받아들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뿐이다. ...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 오늘날의 문제는 일이 아니라 생명이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사는가? 자신이 사는 삶에 만족하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그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 신성한 사상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음식과 음료로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비교 요 6:51, 53).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질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합당하게 살 수 있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6, 265-26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유월절 어린양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시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가시게 하신다(출 12:12-13). 요한복음 6 장 53 절에서 ... 주님은 구속을 위해 필요한 그분의 피(요 19:34, 히 9:22, 마 26:28, 벰전 1:18-19, 롬 3:25)에 관해 말씀하셨다.

유월절에 어린양의 피는 문지방에 발라졌다. 그러나 요한복음 6 장 53 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다. 마시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를 마시는 것은 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 먹고 마신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먹는다는 것은 음식이 유기적으로 우리 몸 안에 흡수되도록, 그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거듭난 새사람 안에 생명의 방식으로 흡수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원칙은 똑같다.

요한복음 6 장 54 절과 55 절에서 주 예수님은 계속하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는 살과 피가 따로 언급된다. 피와 살의 분리는 죽음을 가리킨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죽음, 즉 그분께서 죽으실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을 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셨다.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어서, 구속을 성취하신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한복음 6 장 54 절을 47 절과 비교하면,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임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믿는 것’, 또는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1:12).

요한복음 6 장 56 절에서 주 예수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나도 그 사람 안에’라는 말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부활하셔야 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유월절 어린양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양 공급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신다. 이에 관해 요한복음 6 장 51 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 떡은 식물의 생명에 속하고 오직 먹이기 위한 것이지만, 살은 동물의 생명에 속하고 먹이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구속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주님은 생명나무이셨는데, 이것은 오직 사람을 먹이시기 위한 것이다(창 2:9). 그러나 사람이 죄에 빠진 후에 주님은 어린양(요 1:29)이 되셨는데, 이것은 사람을 먹이실 뿐 아니라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다(출 12:4, 7-8).

요한복음 6 장 51 절 후반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살을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몸, 곧 그분의 살을 주셨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8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79, 46-4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6

1/16 목요일

아침의 누림

요 6:55-57

55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요 14:19-20

19 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살므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요 6:9

9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막 6:42

42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으며,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생소한 문장은 요한복음 6 장 57 절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먹으라고 권유하신다. ...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을 먹어야 한다고 말할 만큼 충분히 담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해야 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많은 동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분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두려워서 감히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살기 위해 하루에 세끼를 먹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먹음으로써 산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먹어야 한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6, 26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6 장은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상세한 항목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다섯 가지 특성을 보았다. 그분은 하늘의 떡이시고(41, 50-51, 58 절), 하나님의 떡이시며(33 절), 생명의 떡이시고(35, 48 절), 살아 있는 떡이시며(51 절), 참떡이시다(32 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매일 실질적인 방식으로 그 영을 접촉하는 체험을 해야 한다. 단지 매일 성경을 몇 장 읽거나 아침 부흥을 하며 말씀의 한 부분을 취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전 존재, 특히 우리 영을 사용하여 지금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해야 한다. 확실히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사용하여 말씀 안에 계신 그 영을 접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 공급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는 그 영을 하늘에 속한 만나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고, 하나님의 떡이시며, 하늘의 떡이시고, 살아 있는 떡이시며, 참떡이시다. 오늘날 이 떡은 단지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3 장에는 종교적이며 교양 있는 사람의 사례가 있고, 4 장에는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의 사례가 있다. 그 다음 5 장은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것이 공허함을 보여 준다. 6 장의 중점은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이며 우리의 양식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는 단지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만이 아니시며, 단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만도 아니시다. 이분은 지금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 우리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우리가 날마다 세끼를 먹는 것처럼 하루에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거듭거듭 먹어야 한다. 심지어 매 순간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신 분을 먹어야 한다. 우리의 창조주, 구속자, 구주, 주님, 주인이신 분은 지금 우리가 항상 접촉해야 할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여러 해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배고프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 공급이시며 매일의 양식이다.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6 장에 계시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는 3 장과 4 장과 5 장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제 6 장에서 우리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이며, 따라서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보리떡과 물고기가 되시는 그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서 낳는 생명과 구속하는 생명인 그분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이 되신다.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은 낳는 생명이시고, 구속하는 생명이시며, 이기는 생명이시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시며, 매일의 자양분을 위한 우리의 양식이신 이 영이 필요하다. ... 나는 우리 모두가 도움을 받아,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고 매일 말씀 안에 체현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을 접촉하기를 바란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2 년, 2 권, 요한의 글에 있는 성막과 제물들의 성취, 18 장, 289, 295-29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2 년, 2 권, 요한의 글에 있는 성막과 제물들의 성취, 18 장

1/17 금요일

아침의 누림

요 6:63

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고전 15:45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 1:14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14:26

26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 20:22

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고전 12:3

3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며,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후 3:17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후 5:16

16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체에 따라 알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가 되신 주 예수님(요 1:14)은 부활 후에, 또한 부활을 통해 고린도전서 15 장 45 절에 분명히 언급된 것과 같이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되셨다.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실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영원한 생명을 분배하신다.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6, 26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6 장 63 절을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육체가 인간 본성을 지닌 인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문맥에 따르면, 여기의 ‘육체’는 물질적인 몸의 살을 가리키며, 앞의 절들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의 ‘살’과 같은 뜻이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살을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물질적인 몸의 살을 그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려는 것으로 생각했다(6:52).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말씀이었다(6:60). 이 시점에서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시며, 육체는 무익하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자신이 그 영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은 문자 그대로의 육체 안에 계시지 않고 육체에서 그 영으로 변형되실 것이었다. 그러므로 6 장 63 절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려는 것이 자신의 물질적인 몸의 살이 아니라고 설명하셨다. 육체인 그 살은 무익하다. 그분께서 영원히 주고자 하신 것은 부활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이신,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었다.

여러분은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가? 사도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육체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육체에 따라 알지 않는다고 말한다(고후 5:16). 이제 그들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안다(3:17). ...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 그분께서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십시오.”(요 20:22)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의 성령은 부활하신 후의 그리스도 자신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그 영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는 달리 더 이상 육체 안에 계시지 않았다. 지금 그분은 그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영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분께서 죽으시기 전 육체 안에 계셨을 때, 그분이 하실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제자들 가운데 계시는 것이었다. 그분은 그들 안에 계실 수 없었다. 지금 그분은 그 영이시므로 쉽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으로 주님을 접촉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신 그분을 접촉할 수 있다.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그분은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취할 수 있고 우리의 음식으로 그분을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을 얻는다. ... 우리가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영을 받는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부르지만 그 영을 받는다. 왜 그런가? 그것은 오늘날 주 예수님께서 그 영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을 얻는다는 사실은 오늘날 주 예수님께서 그 영이시라는 강한 증거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고전 12:3)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영 안에 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 영은 인격이다. 그 영은 예수님의 인격이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4 장 26 절을 읽을 필요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 곧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 영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어지신다. ...그 영은 예수님의 인격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과 인격 둘 다를 가지고 있다. 그 영을 얻는 최상의 길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은 그 인격을 받아들이며, 그 인격은 그 영이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영을 얻는다. 그 영은 사랑스러우신 주 예수님의 인격이시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6, 260-26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6

1/18 토요일

아침의 누림

요 6:48, 68

48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 1:1

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 3:16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5:24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이미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 17:8

8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그들이 참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엡 6:17-18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안에 계신 그 영을 접촉하지 못한다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영은 성경의 정수(精髓)이시다. 그러나 이 정수는 말씀 안에 체현되어 있다.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날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이 생명 주시는 영은 말씀 안에 체현되어 계신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말씀 안에 계신 그 영이신 주님을 접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2년, 2권, 요한의 글에 있는 성막과 제물들의 성취, 19장, 295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 영은 놀라우시지만 너무나 비밀하시다. 우리에게는 견고하며 볼 수 있고, 실체가 있으며 만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6 장 63 절에서 주님은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은 구체적이다.

요한복음 6 장 63 절에서 ‘말’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레마’로서 즉각적인 말씀, 지금 하시는 말씀을 가리킨다. 이것은 항상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로고스’(요한복음 1 장 1 절의 ‘말씀’에 사용됨)와는 다르다. ... ‘그 영’은 살아 계시고 실재하시지만, 매우 비밀하시고 만질 수 없으며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말씀은 구체적이다. 먼저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그 영’이 될 것임을 언급하셨다. 그 후에 주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의 영의 체현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제 주님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이 영은 그분의 말씀으로 체현되신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이신 그 영을 얻는다.

말씀은 우리 밖에 있다. 내가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즉시 그 영이 된다. 내가 그 말씀을 말해 낼 때, 그 영은 다시 말씀이 된다. ...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상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때, 그들은 말씀을 믿는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실상 그 말씀은 그들 안에서 그 영이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한복음 3 장 16 절을 통해 주님께 왔다면, 여러분은 “주님, 당신이 제게 너무나 좋은 분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제게 주셨습니다.”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른다. ...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활기를 띠며 살아났다. ... 여러분은 말씀을 믿었지만 그 영을 받았다. 여러분 밖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 영이 되었다. ...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또한 그

영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매우 비밀스럽고 놀랍다.

주님은 그 영과 말씀이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고, 그 영은 말씀이시며, 말씀은 그 영이고, 그 영은 우리가 누리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 그러므로 우리가 영 안에서 말씀을 접촉할 때, 사실상 살아 있는 떡이신 주님 자신을 접촉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넘치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음식과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6 장은 생명의 말씀으로 끝맺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수단이다. ...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그 영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 영을 가지면, 여러분은 내적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가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되시려고 거치신 여섯 단계를 보았다. 그것은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과 생명의 말씀 안에 체현되심이다. 주님은 육체가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육체에서 그 영으로 변형되셨고, 말씀 안에 체현되셨다. 말씀은 주님의 영의 체현이다. ... 주님은 말씀 안에 체현되셨다. 그분은 그 영이시고 말씀이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신 그 영을 가질 것이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6, 262-26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2년, 2 권, 요한의 글에 있는 성막과 제물들의 성취, 19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권, 메시지 16

찬송: 187 (英) 날마다 예수 먹으라 크고 작은 시련 속에

- 1 날마다 예수 먹으라 크고 작은 시련 속에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사람인 그를 먹으라 더 예수를 먹어 더 예수를 먹어 그분의 인성 있는데 영양실조 웬 말인가?
- 2 예수적인 사람 되는 그날까지 예수 마셔 사막에도 강이 흘러 목마름 사라지도록 더 예수를 마셔 더 예수를 마셔 그분의 인성 있는데 목마름이 웬 말인가?
- 3 하나님 계획 완전히 이루도록 예수 먹어 한 지방 한 교회로서 한 사람 표현되도록 다 예수를 먹어 다 예수를 먹어 참 소제이신 예수를 회막 안에서 누리세.

1/19 주일

아침의 누림

- 출 16:13-19, 31-33**
- 13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을 뒤덮었고, 아침에는 진 주변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 14 이슬이 스러진 뒤에 보니, 광야 지면에 잘고 둥근 것이 있었는데, 마치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잘았다.
- 15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서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떡입니다.

16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라. 너희 가족의 인수에 따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각 사람이 자기 천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

17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더니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다.

18 그러나 그들이 거둔 것을 오멜로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둔 것이다.

19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마십시오.”

31 이스라엘 집은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희고, 그 맛은 꿀로 만든 전병 같았다.

32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만나를 한 오멜 가득 채워 대대로 보관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게 한 이 양식을 자손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

33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 그 안에 만나 한 오멜을 가득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보관하십시오.”

계 2:17

1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